

아파트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A Survey Study on the Utilization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in Apartment complex

정 사 희* 김 상 호**
Chung, Sa hee Kim, Sang ho

Abstracts

Our country, Korea, has become the aged society in 2000. Thus, the problem of the old assumes an aspect of wide scope and variety, and it becomes a social problem. The world does its utmost to settle the welfare of the old, and international action plan and UN principle for the old have been established in recent years. Keeping pace with this trend, our country carries forward a middle and long term plan of welfare of the old. However, facilities for the old in apartment complexes are established not in a level of the welfare of the old, but in a level of relief work or the protection of the ol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series of reform measures of the facilities for the old and the direction of the plan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old, by studying the present situation and actual conditions of facilities in apartment complexes.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인구가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돌입하였다. 2022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일본이 26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함을 의

미한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문제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노인복지 해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거주형태에 있어서도 아파트 거주노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아파트 단지 내 노인시설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아파트 단지 내 노인시설을 살펴보면 단순히 구제사업이나 노인보호의 개념으로 노인정이라는 공간제공을 목적으로 계획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1989년부터 정부는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영구 임대 아파트단지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민복지를 위해 지방 자치 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운영케 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 정희원, 원광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원광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 논문은 1999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노인 복지프로그램에 따른 종합적인 노인시설계획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현재의 아파트 단지 내 노인시설은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형태의 노인시설 현황과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용특성의 분석, 검증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단지 내 노인시설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특성과 공간구성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장차 급증하는 노인시설의 요구에 대한 적정공간구성을 제시하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아파트단지 내 노인정과 사회복지관 형태 노인시설을 대상으로 시설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특성 및 공간구성에 대한 분석을 범위로 정하였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하여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한 다음, 1차 조사는 1990년 이후 준공된 전주, 익산, 군산 소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 36개소의 단지 내 노인정 37개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회복지관 내 노인정도 포함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노인복지가 비교적 고려된 6개소의 사회복지관 내 노인시설을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1차 조사는 노인시설의 전체적인 현황과 이용실태파악을 하기 위해 현장답사와 관찰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 노인시설 이용노인 223명(남 98명, 여 1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공간구성에 따른 시설의 이용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노인정 공간구성에 대한 인식
2. 노인정 이용노인의 여가활용방법
3. 노인정 이용빈도 및 이용시간

4. 노인시설에 대한 견해분석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추출된 6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도면분석, 관찰조사, 1대1설문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우리나라의 노인주거 관련 연구 중 건축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크게 노인시설(양로, 요양), 동거주택, 노인일반주거(노인촌 포함), 외국 노인주거 및 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노인주거 환경에 관한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12건의 자료를 분류하여 보면 노인시설에 관한 것(29%), 그 다음은 일반 노인주택에 관한 것(24%)과 동거주택에 관한 것(15%)으로 노인주거 관련 연구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노인 여가시설에 관한 연구는 9.4%로 미진한 상태이다.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연구로는 서울시 4개 공원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공원 이용실태 및 행태에 따른 옥외공간의 기본계획(김미정, 1980)이 있고 노인정 시설조사 및 시설현황과 이용노인의 의식조사를 통한 기초자료제시(박용환, 1980 외 다수, 서울지역 19개소, 광주시지역 20개소, 부산시내 아파트단지 내 11곳, 인천시 노인정, 대전시 노인정)등이 있다. 또한 노인정에서의 노인의 프라이버시와 영역성, 경로당의 입면형태에 대한 유형화(광주시 경로당)의 연구, 여가활동 실태조사와 여가정책방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공간계획에 있어서는 아파트단지 내 노인정이라는 1실의 공간계획을 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의 아파트단지 내 노인시설의 전체적인 현황 파악과 이용실태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구성이 비교적 고려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내 노인을 위한 소요실의 구성형태와 이용특성 비교분석, 요구도, 만족도 등의 검증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Ⅲ. 노인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1. 노인시설의 현황

조사대상은 전주 16개소, 익산 10개소, 군산 11개소로서, 36개 아파트단지 내 37개 노인시설로 하였다. 그 중 31개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 시설은 노인정뿐이며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조차 없는 상태로 실상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를 위한 실 구성이 필요함을 뚜렷이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전주 2개소(평화동 주공 1차 아파트 2개소, 평화동 주공 4차 아파트), 익산 2개소(부송동 주공1차 아파트, 동산동 주공 임대 아파트), 군산 1개소(나운동 주공 4차 아파트)의 아파트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설계획이 비교적 다양함을 알 수가 있었다. 따라서 이 5개의 아파트단지 내 6개소의 시설은 2차 조사로서 4장에서 보다 세심한 분석작업을 하였다. 주택건설촉진법 제 55조 노인정에 관한 규정의 설치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노인정의 연도별 여유면적의 추이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러한 조사대상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의 일반적인 형태로 간주된다. 그림 1은 조사대상 아파트의 노인정 면적을 법적 기준으로 나눈 면적비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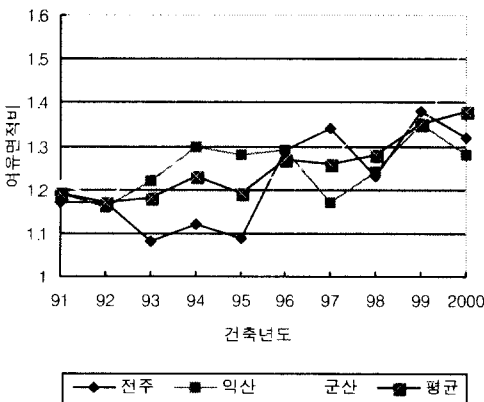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여유면적 추이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노인정의 여유면적비가 91년 평균 1.19에서 2000년 평균이 1.38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가 노인정 초기계획 시 고려되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노인정의 층별 위치를 살펴보면 1층에 계획된 곳이 31개소(83.8%)로 가장 많았으며, 2층에 계획된 경우가 5개소, 1층(할머니실)과 2층(할아버지실)으로 계획된 곳이 1개소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1층에 계획된 경우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인의 이용특성상 건강상의 문제, 이동성의 저하, 안전성의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표 1. 노인정의 층별 위치현황

구 분	개 소	백분율(%)
1층	31	83.8
2층	5	13.5
1층(여실), 2층(남실)	1	2.7
계	37	100

2. 노인정시설의 이용실태 분석

1) 평면구성 분석

노인정 공간구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성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노인의 이용성향, 선호유형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대상 노인정의 공간구성을 유형화하였다. 유형화 기준은 남녀실의 공용, 분리의 여부와 별도 여가공간의 제공여부에 의하여 구분하였다. 사회복지관 내 노인정 또한 포함하였다.

표 2. 노인정 공간구성 유형화와 각 type별 개소

구 분	개소	백분율(%)
A type (남녀 실의 구분)	17	45
B type (남녀 공용실)	7	19
C type (남녀실의 분리와 별도 여가공간제공)	13	36
계	37	100

A type은 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꾸준히 지어지고 있었으며,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이용률은 중간정도를 나타내었다. 최근 5년 안에 지어진 노인정일수록 C type이 많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용률 또한 가장 높았으며 법적 설치기준 비례 여유면적도 가장 넓었다. 이용 노인들 또한 C type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성별과 놀이 종류에 대한 privacy의 확보 및 환경의 쾌적성을 들었다.

B type은 90년대 초반에서 중반사이에 지어진 경우가 많았으며 노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형태로서 이용률 또한 가장 낮았다. 법적 기준 비례 여유면적도 B type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노인들은 오락공간의 개별 구획과 남녀공간이 분리된 공간계획을 선호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가 별개의 오락공간과 남녀 실의 구분을 더욱 선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연령별 세부구획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표 3. 각 유형별 선호도

유형\성별	남 (명)	(%)	여 (명)	(%)
A type	36	36.7	21	16.8
B type	17	17.6	2	1.6
C type	45	45.7	102	81.6
합 계	98	100.0	125	100.0

2) 노인정 내에서의 여가활동 분석

노인정 내에서의 여가 활용방법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장기, 바둑, 화투놀이 등의 오락행위로서 전체 응답자의 57.4%에 해당하는 128명으로서, 노인정 계획 시 privacy를 침해하지 않는 환경에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희망여가 소일방법으로는 레크레이션, 취미생활, 교양강좌, 공동작업등의 비율이 노인정에서 소일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석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여가활용을 원하는 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정 시설에 있

어서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사회참여의식을 부여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과 시설계획이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표 4. 희망 여가활용 방법

희망 여가 활용방법 \성별	남(명)	여(명)	계
레크레이션	32	51	83(37.2%)
취미생활	21	29	50(22.4%)
교양강좌	13	11	24(10.7%)
부업	12	10	22(9.8%)
화투, 장기, 바둑 등	6	8	14(6.2%)
가무(歌舞)	5	7	12(5.3%)
친구와의 답소	5	5	10(4.4%)
사회봉사활동	2	3	5(2.2%)
한글배우기	2	1	3(1.8%)

3) 노인정 이용빈도 및 이용시간 분석

노인정 이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4-5회가 58.3%로 가장 많았으며 2-3회가 33.2%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일수록 노인정의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3시간 이상이 64.5%로 노인정 이용시간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5. 연령별 노인정 이용빈도

이용빈도\연령(주 당)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이상	명(%)
1회	5	8	13(5.8%)
2-3회	33	41	74(33.2%)
4-5회	56	74	130(58.3%)
거의 매일	2	4	6(2.7%)

4) 노인시설에 대한 견해분석

노인정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는 장소는 전체 응답자의 56%가 거실로 대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방이 23.3%, 마지막으로 화장실이 20.7%로 나타났다. 거실의 경우 불편을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협소하다(40.3%), 남녀공간이 분리되어있지 않다(34.5%), 시끄럽다(22.4%), 기타(2.8%)로 나타났다.

이는 거실의 면적증가, 여가공간의 분리, 남녀 공간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방의 경우 설치면적이 이용인원에 비해 너무 협소하고, 주방의 위치가 남성 혹은 여성의 방에 연결 구획된 경우가 있어서 이에 따른 동선의 혼선이 있었다. 또한 거실과 분리가 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이고 환기의 문제와 시설의 낙후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화장실의 경우도 남, 여의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비위생적이고 이용인구에 비해 면적이 협소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거실의 계획 시 남녀의 구분이 된 세분화되고 목적에 맞는 공간구성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으며, 주방의 계획 시 남성과 여성의 분리계획, 조리면적의 확장과 시설의 개선, 화장실 계획 시 남녀의 구분과 면적의 확장이 요구됨을 알 수가 있다.

표 6. 노인정 내 불편을 느끼는 장소

장소\성별	남성		여성		합계	
	명	%	명	%	명	%
거실	55	25.1	69	30.9	124	56.0
주방	20	9.0	32	14.3	52	23.3
화장실	23	10.0	24	10.7	47	20.7
합계	98	44.1	125	55.9	223	100.0

노인시설에 대한 설문에서는 대다수 노인들이 현재의 상태에 대해 상당히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 요구사항으로는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시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조리시설의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노인시설이라 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노인정 이외에 설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시설들을 말하고 있다. 이 중에는 노인 여가프로그램에 관련한 시설과 건강에 관련한 시설의 확충 및 기존시설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사회복지관 내 노인시설의 이용특성

본 장은 3장 분석에서 추출한 C type 유형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비교적 다양하게 구성된 5개 아파트단지 내 6개소의 노인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황분석과, 소요실의 구성분석, 이용 특성분석, 선호도 및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표 7. 조사대상 아파트단지 내 노인시설

지역	아파트단지 명	복지관 명
전주	평화주공1단지영구임대	전주종합 사회복지관 전주평화 사회복지관
	평화주공4단지영구임대	동암 사회복지관
익산	부송주공1단지영구임대	부송 사회복지관
	동산주공1단지영구임대	동산 사회복지관
군산	나운주공4단지영구임대	나운 사회복지관

1. 사회복지관 내 노인시설

6개 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따른 이용시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운영 노인복지프로그램과 노인이용시설

노인복지 프로그램	시설의 종류
노인대학	프로그램실, 한글 교실
취미생활	기능교실, 프로그램실
의료서비스	노인정, 물리치료실, 강당
무료 물리치료 서비스	물리치료실
노인청춘학교	기능교실, 프로그램실
무료 이·미용 서비스	미장원, 이발소
운동, 노인게이트볼	체력 단련실(탁구, 헬스), 놀이터
재가 복지서비스	복지 사무소
목욕서비스	이동 목욕봉사센터

조사대상시설은 모두 주공 영구 임대아파트단지 내에서 사회복지관 형태로 사회복지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1차 조사 대상노인정에 비해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따른 시설구

성과 함께 보다 활발한 이용이 나타난다.

2. 사회복지관 내 노인시설의 공간구성

복지관내 노인이용시설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A, B, C, D의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러한 네 가지 case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노인시설공간 연계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간구성 형태로 구분한 것이다.

- (1) Acase - 1층 : 노인정과 식당의 내부연계
2층 : 진료 및 여가실 (층의 분리)
- (2) Bcase - 1층 : 노인정과 물리치료실의 연계
진료공간의 연계
2층 : 여가 오락공간의 분리계획
- (3) Ccase - 2층 : 노인정과 물리치료실의 연계 · 여가시설의 분리
- (4) Dcase - 2층 : 진료, 노인대학, 경로식당의 1실 공용구성, 물리치료실과 여가시설의 연계, 노인정의 별개 동 분리계획

표 9. 각 case 별 복지관 분류

구 분	복지관 명
A case	전주시 동암 사회복지관
	익산시 부송 사회복지관
B case	전주시 평화 사회복지관
	익산시 동산 사회복지관
C case	전주시 종합 사회복지관
D case	군산시 나운 사회복지관

평면분석결과 현재 시설의 구성이 원래 도면과는 달리 재구성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재정 관리상의 문제와 복지사무소 운영 중심으로 평면이 재구성되었다.

군산 나운 복지관의 경우 목욕탕과 사우나실을 개조하여 물리치료실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회의실공간을 진료 및 노인대학, 급식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정이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계획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

다. 전주 종합복지관의 경우 1층에 노인정과 복지시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1층부를 관리사무소와 복지사무소로 활용하고 2층부에 노인정과 노인복지시설공간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회의실이나 강당공간에서 시간대를 나누어 진료나 급식, 노인대학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세분화된 공간의 분할과 시설의 확충이 요구됨을 볼 수가 있다.

3. 사회복지관 내 노인시설의 이용특성

조사대상 노인의 각 유형별 시설 이용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case의 경우, 1층부에 별도의 주방이 없어 노인들의 이용이 비교적 높은 시설인 경로식당과 노인정이 실 내부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연계구성 되어 있어 노인정 이용이 활발하고 노인정 이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진료 및 여가오락공간이 2층부에 분리계획 되어 이용자의 동선중복을 피하고 기능의 연계에 의해 공간활용이 효율적이다. 반면 진료공간 및 물리치료실이 2층부에 구성되어 있어 다른 조사대상 복지관에 비해 물리치료실의 이용이 저조하였으며 설문에서도 물리치료실의 위치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로써 건강상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공간의 특성상 이용자의 이동문제와 동선의 혼잡, 진료를 받을 시 의료기구의 이동문제가 작용한다.

B case는 노인정과 물리치료실이 함께 계획된 형태로서 1층부에 노인정과 이용성향이 가장 높은 물리치료실을 함께 연계하여 계획함과 동시에 경로식당 또한 함께 계획된 형태이다.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같은 영역으로 묶어 계획함에 따라 이용동선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가장 활발한 이용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여가시설은 2층에 분리 계획되어 명확한 기능분리를 통해 노인들의 선호도 또한 가장 높았다. 체력 단련실이 없는 관계로 노인게이트볼을 실외의 운동장에서 실행

하고 있어서 노인게이트볼 장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었다. 또한 노인정과 물리치료실, 경로식당의 연계로 인해 노인정의 면적이 비교적 작았다.

C case는 경로식당이 없는 유형으로, 2층부에 노인정과 물리치료실의 연계구성, 동층에 취미시설을 구성한 경우로 다양한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을 연계구성 할 수가 있으며 공간의 가변성을 꾀할 수 있는 여가활동 중심의 구성 형태이다. 따라서 다른 유형에 비해 여가활동의 비율이 높았으며 만족도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경로식당이 계획되지 않아서 노인정과 물리치료실을 비교적 넓은 면적으로 계획하였고 공간활용 상 이상적인 공간면적으로 사료된다. 반면 노인시설의 2층부 구성으로 인한 이동성의 문제와 젊은 세대들과의 교류가 적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D case는 노인정의 별도 형태 분리계획으로 인해 노인정 이용노인과 복지관 이용노인이 명확히 구분되어 노인들의 사교호름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노인정을 중심으로 활발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반면 복지관내 노인시설의 이용이 비교적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한 하나의 실에서 진료 및 취미시설, 교양시설이 병행 운영되므로 그에 따른 세심한 운영과 건축적 공간구획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종합해보면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case는 B case로서 전체적으로 1층 부에 노인정, 물리치료실, 경로식당을 연계시켜 구성하고 여가시설은 따로 분리하여 계획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이용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노인정의 면적은 1차조사 유형과 비교해 볼 때 줄어들었으나 물리치료실이나 진료실로 세부 계획되어 시설이용노인들의 이용률과 선호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의 실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보다 세분화되고 특성 있는 공간분할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 내에서의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

이어서 시설 또한 명확하게 특징이 있는 실로 구성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노인정의 분리계획은 노인정 이용노인과 복지관 이용노인을 구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원활한 교류 및 사교의 호름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노인정은 복지관내에 구성시키는 것이 관리차원에서나 이용자측면에서나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현재 시설에 관한 요구도 조사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따른 여가시설의 확충을 1순위로 요구하고 있었으며, 물리치료실의 면적증가와 의료시설의 확보, 체육시설의 확충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여가생활과 건강을 중시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현재 노인이용시설에 대한 견해 분석을 위해 노인이용시설의 선호도와 요구시설에 대한 견해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선호도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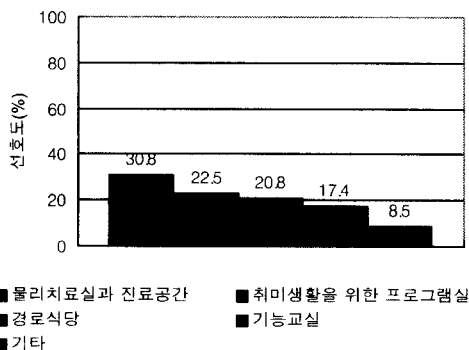


그림 2. 노인이용시설의 선호도

이러한 시설이용에 대한 선호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이용시설 중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노인여가 및 취미생활을 중시함을 알 수가 있다.

요구시설을 살펴보면 현재의 물리치료실과 의료공간은 면적이 협소한 상태이고, 특히 의료공간은 따로 계획되지 않고 강당이나 노인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설과 의료장비 또한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물리치료실의 면적 증가와 의료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공간의 구획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한 체육시설과 세분화된 여가활동 공간,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가 노인시설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의 이용특성에 적합한 노인복지시설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아파트 단지 내 노인시설의 현황과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시설에 대한 노인의 이용특성과 시설의 대응적 측면을 고찰하여 기존의 부적절한 요소를 파악한 다음 그에 따른 개선점과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실행되었다.

위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아파트단지 내 노인정 조사 분석 결과 법적 기준에 대한 여유면적비가 91년 평균 1.19에서 2000년에는 1.38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용특성상의 요구로 인한다. 따라서 노인시설의 법적 설치기준의 구분에서 현재의 여가시설에서 복지시설로의 상향조정을 통해 설치기준의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에 따른 시설계획을 위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현재의 아파트단지 내 노인시설은 노인정과 복지관 운영으로 구분된다. 전체적으로 노인들은 다양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에 관한 시설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복지서비스시설, 취업을 위한 기능교실 순으로 나타났다.

3. 복지관 내 노인이용시설의 요구도 조사에서는 여가활용을 위한 취미시설, 물리치료실 및 진료공간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의 취미생활을 위한 공간과 물리치료실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계획 당시부터 명확한 공간구성이 되지 않아서 필요에 따라 재구성되어 사용됨을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과의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의 공유와 사회복지관 형태의 종합적인 시설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사회복지관 형태의 계획시 공간구성은 1층을 중심으로 한 노인정과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진료공간의 연계구성을 통해 이용동선을 최소화시켜 공간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교양시설이나 취미·오락시설은 기능별로 다른 영역으로 분리 구성하여 영역과 기능이 규정되고 privacy의 확보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아파트단지 내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의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재가노인을 위한 보호시스템의 개발과 공동작업장의 설치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1. 김미정(1980), 노인을 위한 옥외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 박광준의(1999),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3. 박석돈(1995), 사회복지 서비스법, 삼영사.
4. 박용환(1981), 노인복지시설·양로원의 현주소, 건축사 153, pp.14-19.
5. 신경주(1994), 일본 유료인혼의 현황과 그 문제점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5), 노인복지편람.
7. 이동준(1995),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계획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8. 정무용, 정기남(1996), 노인주거 관련 연구 경향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 11호.